

Establishment on the Reduction Technology DB of GHG Emission from Navigation Sector

김용기*, 이재영, 김우선¹, 이철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¹한국해양수산개발원

(ykkim@krri.re.kr*)

기후변화협약 및 포스트교토체제의 대응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 정책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해당업체에 할당하였고, 매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해당기관 및 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량과 감축량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적·사회적·경제적으로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방안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감축기술 개발과 활용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효과적인 측면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감축기술 DB를 제대로 구축되어야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산정은 물론 저감 방안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도입함에 따라 수송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기술 DB는 중장기적으로 국가기관 및 운영기관에서의 활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송부문 중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평가 및 감축방안에 대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국외 데이터에 의존했던 부문을 국가 상향식 감축모형에 대한 요구사항분석과 저감기술 DB 구조설계를 통해 DB목록 체계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해운부문에서 기존의 온실가스 저감기술 DB구축은 국가 상향식 감축모형에 연계하여, 운영기관 및 업체에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할당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과 중장기 저감 정책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